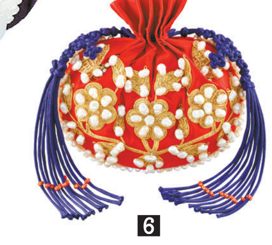
한복부터 수트까지, K액세서리 전성시대

조상님 패션템 후대를 빛내다



K컬처의 확산으로 한복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사극이 인기를 얻고, 아이돌 스타들의 한복과
전통 장신구 착용이 잦아지면서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 속 캐릭터들의 옷차림도 한몫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명칭과 쓰임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설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사극과 아이돌 패션 스타일에서 특히 눈에 많이 뜨이는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에 대해 알아봤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된 것처럼, 우선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현대적 활용법도 고민하지 않을까. 도대체 넌 이름이 뭐니?

서정민 기자

본 기사 속 장신구는 조선의 마지막 왕비인 '영친왕비'의 유물들이다. 1 백옥국화앞꽂이 2 백옥봉황꽂이 3 도금대봉잠 4 족두리 5 산호 단작노리개 6 진주화접문 자수 향주머니. 모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극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머리 장신구. 7 첩지 8 떠구지머리와 떨잠.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 A to Z

지난해 10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 바로 직전, 지상파와 유튜브 등의 채널을 통해 홍보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박찬욱 영화감독, 박지성 축구선수, 안성재 셰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인들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아이브 멤버 장원영은 파일럿으로 분한 지드래곤에게 새침한 표정으로 "2025 차 좀 빼주세요, 2025"라며 웃음을 자아냈는데, 이 장면에서 그가 하고 있는 비녀와 뒤꽂이도 눈길을 끌었다. 장원영은 글로벌 주얼리 브랜드 행사에 초대받았을 때도 봉황장식이 들어간 비녀를 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복의 전통과 철학을 계승하고 현대화를 연구하는 온지음의 조효숙(가천대 석좌교수) 공방장은 "한복 확산과 현대화를 위해 전통 장신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장신구야말로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했다.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인류는 고대부터 목걸이를 비롯해 다양한 장신구를 창조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현대인이 일상에서 한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은 힘들지만 멋진 서양식 수트에 노리개를 늘어뜨리거나, 업스타일 머리에 뒤꽂이를 꽂는 것은 자연스럽고 시도해 보기도 쉽다. 물론 이를 보는 이들의 반응도 좋다.

정호연은 댕기, 장원영은 봉황 비녀로 화제

조선시대 여성들의 장신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뒤꽂이'는 쪽머리에 꽂는 장식품으로 꽃을 중심으로 나비 등을 조합한 형태가 많다. 왕실과 양반가에서는 은·비취·산호·호박 등을 사용했고 서민들은 놋쇠를 주로 이용했다. 재미있는 것은 귀이개에 꽃 장식을 달아 뒤꽂이 겸용으로 만들고 실용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취한 형태도 있다는 점이다. 머리 앞·뒤·옆을 장식하는 다양한 '꽂이'가 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통 장신구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것도 뒤꽂이다.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5만1000개의 게시물이 검색된다. 네이버에서 '한복 뒤꽂이'를 검색하면 3만여 개의 제품이 뜬다.

'떨잠'은 대례복을 입고 큰머리를 할 때 머리 중앙과 양쪽에 꽂는 장신구로 '떨철반자'라고도 한다. 원형·사각형·나비형 옥판에 은사로 만든 가는 용수철(떨)을 붙이고 그 위에 나비·꽃·새 등의 떨새를 고정시킨 디자인이다. '떨잠'이라는 이름은 떨이 흔들릴 때마다 떨새가 화려하면서도 우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넷플릭스 작품 '오징어게임' 시즌1에 출연하면서 글로벌 스타가 된 모델 겸 배우 정호연은 각종 시상식과 파티에서 여러 종류의 댕기를 사용해 주목 받았다. 루이 비통이 자신들의 드레스와 맞춰 직접 댕기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특히 눈에 띄었던 '뱃씨댕기'는 요즘 사극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장신구다. 사각(마름모꼴) 또는 원형의 비단 위에 은으로 만든 배의 씨 모양이나 국화꽃 모양을 붙인 다음, 파란(보석의 일종)이나 칠보 등으로 장식하고 양쪽에 끈을 단 형태다. 원래는 대여섯 살 미만의 여아용 머리장식이지만 요즘 사극에선 젊은 여성들도 많이 하고 나온다. 아마도 앳된 모습을 표현하기 좋아서인 듯하다.

쪽머리에 꽂는 비녀 용도 '뒤꽂이'
꽃·나비로 장식, 귀이개 겸용도

모자처럼 머리 위에 얹는 '족두리'
'가체' 금지 후 여인들 사이서 유행

노리개·두루주머니, 키링과 흡사
사극 의상·시상식 예복 만능코디

'족두리'는 예복용 관모로 영·정조 시대에 사치를 조장하는 가체(加)를 대신해 널리 쓰이게 됐다. 가체란, 조선시대 여성들이 숱을 많아 보이게 하거나 모양을 꾸미기 위해 머리 위에 얹거나 덧 넣은 딴 머리로, 일종의 가발이다. 흔히 '다래' 또는 '다레'라고 하지만 표준어는 '다리'다. 족두리는 검은색 비단 안에 솜을 넣어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석웅황(붉은 갈색 빛깔의 장식용 돌)·옥판·산호·진주 등을 세워 장식한다. 족두리와 함께 예식용 관모로 많이 쓰이는 '화관'은 검은 종이로 관을 만든 후 그 위에 금박지로 문양을 오려 붙이고 정수리 부분에 옥판과 다양한 보석을 올려 꾸민 것이 특징이다.

'첩지'는 궁중이나 양반가 여인들이 주로 하던 짧은 비녀 모양의 장신구다. 쪽머리의 가리마에 얹어 사용하는데 족두리와 함께 영·정조시대 가체 금지령 때문에 생겼다. 폭이 좁은 가체 위에 비단 받침대를 만들고, 다홍색 실로 첩지를 고정시킨 후 양쪽으로 늘어뜨린 가체를 귀 뒤로 넘겨 묶어 사용한다.

쪽머리에 뒤꽂이, 허리에는 노리개를 하고 있는 '케데헌'의 조이.

둘레머리에 단작노리개를 한 여인은 신윤복의 '미인도' 속 여인이다.

'뱃씨댕기' 머리장식을 한 모델 겸 배우 정호연.

'얹은머리'와 '떠구지머리'도 가체 금지령과 관련 있다. '얹은머리'는 머리카락을 땋아 앞 정수리에 둥글게 고정시킨 머리모양으로 조선시대까지 기혼녀의 기본 머리형이었다. 본인의 머리카락을 땋아서 머리 위로 둥그렇게 감아올리거나 가체를 더해 풍성하게 부풀어 올렸는데, 가체의 크기가 날로 커지면서 사치가 성행하고 가체 무게에 눌려 목뼈가 부러지는 등 폐단이 심해지자 영·정조대에 가체 금지령이 내려졌다. 새롭게 선보일 넷플릭스 '스캔들'에 출연한 배우 손예진이 최근 인터뷰에서 "조선시대 여인을 연기하는데 머리 장식이 무거웠다"고 한 것은 바로 이 가체 때문이다. 2019년 론칭한 브랜드 리우앤비우에선 가체를 모티브로 한 머리띠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김예지 리우앤비우 대표는 "가체 모양보다 중요했던 것은 다양한 머리 장식을 즐겼던 조선시대 여성의 태도였다"며 "솜을 넣어 땋은 모양의 가체를 만들고, 그 사이에 다양한 꽃이나 귀걸이 등을 꽂아 장식할 수 있도록 전통 디자인을 재해석 한 부분을 젊은 소비자들도 재밌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얹은머리는 반가의 부녀들이 했던 '둘레머리'와 기녀들이 했던 '트레머리'로 나뉘는데, 모양이 달랐다. 둘레머리가 좌우대칭형이었다면, 트레머리는 비대칭형이다. 영·정조가 가체를 금했을 때도 천인에 속하는 기녀들은 예외였기에 트레머리는 더욱 화려하고 과장된 형태로 발전했다고 한다.

'떠구지머리'란 어여머리(궁중이나 반가의 상류층 부녀, 상궁 등이 하던 예장용 머리) 위에 떠구지를 사용한 형태를 말한다. 원래는 큰 잔치 때 어여머리 위에 가체를 올려 큰머리를 만들었는데, 가체 금지령 때문에 오동나무를 깎아 머리를 땋은 것처럼 무늬를 새기고 검정색 옻칠을 해서 만든 일종의 나무 가발을 사용했다. '떠구지'란 이름은 나무 가발을 원래의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한 두 개의 긴 비녀를 말한다.

'노리개'와 '두루주머니'는 현대인들의 의상과도 잘 어울려서 활용할 만한 여지가 많은 장신구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저고리 고름에 달고 다니던 노리개는 매듭을 엮은 후 금·은·동·산호·호박·비취·옥 등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형태의 장식물(주체)을 달거나 금·은사로 수를 놓은 주체를 달았다. 노리개를 달 때 하나만 달면 단작노리개, 노리개 3개를 달면 삼작노리개라고 부른다. 노리개에 다는 주체에 향을 넣어 다니면 향낭노리개, 바늘집을 넣고 다니면 바늘집노리개라고 했다. 은으로 만든 귀이개를 주체 중 하나로 달았던 노리개도 있다.

전통 장신구 넘어 'K컬처 아이콘'으로 주목

'두루주머니'는 돈이나 소지품을 넣기 위해 소지하고 다녔던 주머니의 일종으로, 형태가 둥근 것을 말하며 각이 진 형태는 '귀주머니'라고 불렀다. 겉에는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길상 문양을 수놓거나 금박으로 찍었다. 각종 주머니는 안에 넣는 물건에 따라 그 이름이 각각 달랐는데, 향을 넣고 다니는 향주머니가 대표적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복주머니'는 두루주머니의 일종으로 정월의 첫 해일(上亥日·첫 번째 돼지날) 또는 첫 자일(上子日·지지(地支)가 자(子)로 된 음력 정월 첫 번째 날)에 차면 일년 내내 좋지 않은 기운을 쫓고 만복이 온다고 해서 친척과 자손들에게 나눠주던 선물이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 입니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모던건설 MODERN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